

〈시각디자인학과〉 ‘시디’ 수강신청 혼란 신청 방식 변경 오류

천민주 기자 cheonminju03@knu.ac.kr

지난 12일 시각디자인학과 다전공생들이 수강신청 TO가 열리지 않고, 관련 공지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겪었다.

다전공 수강신청 당일이었던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 시각디자인학과 다전공 수강신청 TO는 한자리도 열리지 않았다. 시각디자인학과 다전공생 A 씨는 “이번 학기부터 전공과목에 명시된 학년에 맞춰 해당 학년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공지를 전달받았다”며 “다전공생

도 그 경우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학과 행정실에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후 다음 날인 6일 15시경 A 씨를 비롯한 시각디자인학과 다전공생들은 ‘다전공생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다전공 신청 기간에 자유롭게 수강 가능하다’는 답변과 문자 공지를 받았다.

그러나 문자 공지와 다르게 다전공 수강신청 당일인 12일 10시 30분에는 수강신청 참여석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시각디자인학과를 다전공하고 있는 A 씨를 포함한 몇몇 다전공생은 12일 당일 11시경 학과 행정실에 수강신청에 관해 문의했

다. 그러나 다전공생들은 행정실로부터 ‘다전공생 수강신청일(12일) 이 아닌 다음 날인 전학년 수강신청 기한에 신청하라’는 답변만을 받았다. A 씨는 “지난 6일에 문자로 받았던 공지 사항을 다시금 전달했지만 바뀌는 사항은 없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후 시각디자인학과 다전공생들은 12일 13시 50분경 학과 측으로부터 14시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 공지를 받았고, 잠시 뒤인 13시 59분에는 신청 시간을 15시로 변경한다는 재공지를 받았다. 실제로 시각디자인학과 다전공 수강신청이 진행된 것은 12일 15시였다. A 씨는 “수강신청이라는 것이 학생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장돼야 할 권리인데 자리가 열리지 않아서 문의하고 항의해야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황스러움을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로 인해



시각디자인학과 다전공생들이 수강신청에서 혼란을 빚었다.
(사진=대학주보DB)

다전공을 희망하던 학우분들이 뜻을 접을까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상희 시각디자인 학과장은 “본래 다전공 수강신청을 전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시행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박 학과장은 “다전공 수강신청 전 희망과목 담기 결과 가장 인기 있는 과목 두 가지의 TO가 각 학년의 수강신청 이후에도 이례적으로 충분했다”며 “다전공자들의 TO를 전학년 수강신청 당일에 한꺼번에 열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관하여 다전공생들에게 사전 공지를

하지 못한 것은 학과 측 실수였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학기부터 학년별 수강신청으로 수강신청 방식이 변경된 배경에 대해 박 학과장은 “학년별 수강신청을 진행하게 된 것은 시각디자인학과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각디자인학과의 경우 학생 수에 비해 전공 필수 과목의 수와 분반의 수가 부족해 학생들이 본 학년의 과목을 수강할 수가 없는 경우가 빈번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수강신청 방식을 학년별 수강신청으로 변경해 진행했다”고 전했다.

박 학과장은 수강신청 시간을 15시로 재공지한 것에 대해서는 “다전공 참여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TO가 늦게 열리게 된 것”이라며 “연락을 늦게 받거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학생들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중앙박물관 도자 문화 전시 개최

유경민 기자 gmni0313@knu.ac.kr

우리학교 중앙박물관이 ‘고려에서 조선까지, 우리나라 도자기 이야기’라는 주제로 온라인 전시를 개최한다. 전시는 중앙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대학박물관 진흥 지원 사업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대학박물관 진흥 지원 사업은 교육기관이자 문화기반시설인 대학박물관의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을 지원해 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올 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박물관 대면 관람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 적합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려시대에 꽃을 피워 조선시대까지 그 명맥을 이어왔던 우리나라의 도자 문화를 소개한다. 익히 알려진 청자와 백자부터 청화백자와 철화백자까지 다양한 도자기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청화백자는 흰 바탕에 푸른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도자기를, 철화백자란 철 성분의 물감으로 무늬를 입힌 도자기를



백자청화코끼리무늬팔각병(좌)와 백자철화용무늬항아리(우)

(사진=중앙박물관 제공)

뜻한다.

중앙박물관 측은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작품으로 ‘백자청화코끼리무늬팔각병과 ‘백자철화용무늬항아리’를 꼽았다.

17~18세기경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백자청화코끼리무늬팔각병은 작품에 그려진 ‘코끼리’ 모양의 특수성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중앙박물관 김용은 학예 연구실장은 “조선시대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산장잡기’ 편에서 등장하는 코끼리의 형상에 대한 기록이 (도자기에) 그려진 코끼리의 그림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열하일기」에는 당시 연암 박지원이 직접 청나라에서 본 코끼리의 형상이 기록돼 있다. 그는 코끼

리를 소, 나귀, 낙타, 호랑이의 각 부분의 형상이 섞인 모습으로 묘사했다. 이로 인해 도자기 속 코끼리 그림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이 아니라 호랑이나 소의 모습에 더 가깝게 표현되어 있다. 김 실장은 “조선 시대에 실물을 접하기 어려웠던 외국 동물들을 선조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방식을 엿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7세기 백자철화용무늬항아리는 작품의 형상과 용 그림이 갖는 예술성에서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여러 접합 기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김 실장은 “당시 귀중품이었던 도자기가 파손되었을 때 폐기하지 않고 수리한 흔적”이라며 “조선 후기

에 새로운 도자기 복원기술이 도입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연구 사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 박물관에서 도자기를 단독주제로 전시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라며 “이번 전시가 도자 문화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예술성을 살펴보고, 동시에 상류층의 사치품이었던 도자기가 서민의 일상 용기가 되기까지의 변천사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박물관은 오는 9월 중 오픈을 목표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작업 중이다. 이번 온라인 도자기 전시에서 감상한 작품을 관람객이 직접 큐레이팅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 1면 ‘특별장학금’에서 이어짐

장학금 대상자를 한정한 이유에 대해 양 캠퍸스 총학은 “수혜 학생 1인당 금액을 높여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협의과정 중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국제캠 총학은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금액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며 “타 부서와 단과대학 예산 일부를 코로나19 특별장학 용도로 전환하기를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서울캠 남 회장은 “학교의 재정 상황과 배정된 예산의 사용 방식에 집중해 논의를 진행했다”며 “전체 예산을 정하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대학 본부와의 논의 끝에 캠퍼스 당 3억이라는 타협안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작년보다 축소된 장학 규모에 대해 학생지원센터는 “작년에는 수혜 금액이 천차만별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규모는 컷음에도 개인에 돌아가는 장학금은 소액이었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따라서 올해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을 올리고, 대신 학교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전체 예산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총학생회와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양 캠퍸스 총학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장학금 선발대상자 공고 및 지원은 9월 말로 예정돼 있다. 2021학년도 1학기를 이수한 졸업생들 역시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